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이들의 내적
체험에 따라
영적인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기적으로 건축됨

7/18 월요일

아침의 누림

삼하 7:12-14

12 네 날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일으킬 것인데, 그 씨는 네 몸에서 날 것이며,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13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14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할 것이다.

요일 4:13

13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요 15:4-5, 10, 14

4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여러분이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입니다.

14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을 행한다면, 여러분은 나의 친구들입니다.

요일 2:27-28

27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28 이제, 어린 자녀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며,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 4:19

19 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사무엘기하 7 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다윗 안으로 그리스도를 건축하시는 것이 다윗에게 필요함을 다윗이 깨닫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사무엘기하 7 장은 예표를 통하여 하나의 예언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참으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성경 지식이나 신학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건축할 수 없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 안으로 건축하심으로써 우리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단지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한 종류의 사람에서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 간단히 말해서 사무엘기하 7 장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건축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시는

것이 필요하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24 장, 197-19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사람의 사진이 그 사람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지 않듯이, 하나님의 마음의 사진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없었다. 비록 다윗은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관련된 것이 전혀 없었다.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인성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조성으로서 우리안에 일해 넣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 결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오늘날 우리는 외적으로 다윗만큼 높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조성이 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것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시고 어떤 과정들을 거치심으로, 이 사람이 신성한 무언가로 인정되게 하셨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만아들로 인정되셨다. 부활 안에서,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생명 주시는 영은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 존재 안에 나누어 주시고 분배하심으로써 우리의 내적 조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과 똑같은 하나님-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단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위와 생활과 존재를 가지려고 여전히 애쓰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하기를 갈망하신다는 개념이 없다.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은 그분의 거처가 될 것이며, 그것은 또한 우리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상호 거처가 된다. 새 예루살렘이 이러한 상호 거처이다. 새 예루살렘은 한 면에서 하나님의 거처이고, 다른 한 면에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기도 하다(계 21:3, 22).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5 장 4 절에서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라는 짧은 말씀에 대한 성취일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이해와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심으로써 구속을 성취하셨다. 또한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기를 원하신다. 구속과 구원은 이것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려는 그분의 갈망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 존재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은 이 한 가지를 위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취하시는 크고 작은 모든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하시려는 그분의 의도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25 장, 195-197 쪽, 29 장, 22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24-26, 28-29 장

7/19 화요일

아침의 능력

요 14:23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마 13:3, 23

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23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인데, 반드시 열매를 맺어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육십 배, 또 어떤 사람은 삼십 배로 거둡니다.”

벤전 1:23

23 여러분이 거둬나게 된 것은 썩어 없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요일 3:9-10a

9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마다 죄짓는 것을 일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10 이것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납니다. 의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또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마 5:3, 8

3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8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롬 8:6

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건축’이라는 매우 특별한 용어를 사용한다. … 집을 건축하려면 합당한 재료가 필요하다. … 한 면으로 이 재료는 요소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다른 면으로 이 재료는 우리와 우리의 인성에서 나온 어떤 것을 포함한다.

요한복음 14 장 23 절의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와 … 에베소서 3 장 17 절의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는 같은 단어이다.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 자신을 요소로 하고 또한 우리에게서 나온 무언가를 재료로 하여 건축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 절들에 있는 건축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이 우리의 존재와 매우 큰 관계가 있음을 함축한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0 장, 226-22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13 장에서 씨는 흙 속에 심어져 흙의 양분으로 자란다. 그러므로 이 씨는 그 자체 만으로는 자라지 않는다. 씨는 씨 자체와 흙의 양분으로 자란다. 그 결과로 나온 산출물은 씨와 흙 둘 다에서 나온 요소들로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칙을 본다. 그것은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흙에 뿌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 모래나 돌은 필요한 양분을 공급할 수 없다.

씨는 신성이고, 양분이 있는 흙은 인성이다.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신 어떤 양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양분이 있는 사람의 영을 창조해주셨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은 주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 안으로 심어진 씨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이다.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는

정도는 우리가 이 씨에 제공하는 양분에 달려 있다. 우리가 양분을 더 많이 공급할수록, 씨는 더 빨리 자라고 더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성장은 건축과 동일하다. 주 예수님은 “내가 …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마 16:18)라고 선포하셨다. 이러한 건축은 신성한 씨가 우리 안에서 자랄 때 일어난다.

자라는 정도는 신성한 씨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가 이 씨에 영적인 양분을 얼마나 많이 제공하는지에 달려 있다. 마태복음 13 장은 오직 좋은 땅(8, 23 절)만이 신성한씨가 자라기에 알맞은 양분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은 요소이신 그분 자신께 달려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공급하는 양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혼 곧 우리의 타고난 사람 안에 머문다면, 신성한 씨를 자라게 하는 어떤 양분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된다면, 또한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영을 사용한다면, 양분이 공급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에 거처를 정하실 것이다.

바울은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우리를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다(엡 3:16). 에베소서 1 장 19 절부터 22 절까지에 언급된 이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혔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켰으며,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여 교회에게 준 능력이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며(3:20),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으로 그분의 건축을 위해 우리를 강화하신다. 하나님은 그 영을 통하여 우리를 강화하시며, 그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시다. 한 면에서 하나님은 요소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강화하시며,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양분을 제공한다. 이 두 가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 안에 그분의 내재적인 건축의 일, 곧 그분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행하신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0 장, 228-22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0-31 장

7/20 수요일

아침의 누림

마 16:18

18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고후 3:18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고후 3:16

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요 6:51, 57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내 살인데,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요 7:37-39

37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39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롬 12:2

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은 신진대사적인 변화의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과 교통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세 층, 즉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을 그분께 열고서, 그분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반사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울처럼 그분을 반사할 것이고, 차츰차츰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그분과 동일한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 영에게서 비롯된다(고후 3:18).

우리가 그분을 주목할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새겨 넣으신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반사하게 된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26 장, 199-20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변화는 어떤 새로운 요소를 우리 존재 안으로 더하고 낡은 요소를 내보냄으로써 우리를 바꾸는 신진대사의 과정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매일 합당하게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흡수함으로써 건강한 안색을 갖는 것들 예로 들 수 있다. 이 건강한 모습은 화장한 결과가 아니라 양분을 공급받은 결과이다. ...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 영적인 양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양분은 새로운 요소를 공급하여 낡은 것들을 내보낼 것이다. 차츰차츰 우리는 자라고 바뀌며 성숙할 것이다. ...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영적인 소화와 동화라는 신진대사의 과정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는 것이다. 이러한 신진대사의 과정은 변화, 곧 생명 안에 일어나는 점진적이고도 내재적인 바뀔을 산출한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유기적인 문제이다. 그러한 건축의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유기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동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음료는 유기적 이시며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요 6:51, 57, 7:37-39), 곧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현재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들이섬으로써 그분을 누릴 때, 신진대사의 과정, 곧 영적인 소화와 신진대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조성되신다. 이 조성이 건축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시어 우리의 내적 조성이 되게 하신다. 그러한 건축의 결과로 우리는 매우 특별한 부류의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마태복음 16 장 18 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 그리스도는 ... 우리에게 영적인 음료를 공급하시고 영적인 음식을 먹이섬으로써 교회를 건축하시는데,

오직 그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만이 영적인 음료와 영적인 음식이 되신다.

각종 집회에서 우리는 성도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그들의 영적인 음식과 음료로 공급하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내적이고 영적인 신진대사를 체험할 것이다. 이러한 신진대사가 곧 변화이며, 변화가 곧 건축이다.

영적인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기적으로 건축되는 것이 사실상 여호와께서 사무엘기하 7 장 12 절부터 14 절 상반절까지에서 예표의 방식으로 다윗에게 예언하신 것이다. ... 오직 이 과정을 통해서만 인간적인 것인 사람의 씨가 신성한 것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표의 방식으로 이것에 관하여 예언하신 것이었다. 이것은 사람의 씨가 신성한 아들이 될 것임을 가리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들이며 ...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보물이다.(사무엘상·하 라이프스타디, 26 장, 200-20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나무, 13 장;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집회와 봉사의 성경적인 길, 15 장

7/21 목요일

아침의 누림

엡 3:16-17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엡 1:19-22

19 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 권위보다 그리고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컬을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게 하시고,
22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엡 2:21-22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엡 3:20

20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엡 4:12

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 장 14 절부터 19 절까지는 사도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보여 준다. 아버지는 그 영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강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신다. 믿는 이들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그리스도의 차원을 깨닫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앎으로써, 삼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된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6 장, 83 쪽)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과 하나님의 충만으로 조성되도록, ... 바울은 우리가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므로써 그분 자신으로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점유하시고 소유하시고 침투하시고 적시실 수 있기를 기도하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며, 또한 강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차원을 깨닫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정도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33 장, 31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첫째로, 바울은 근원이신 아버지께 기도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수단과 통로이신 그 영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강하게 하신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려고 움직이시며 일하신다. 결국 아버지와 그 영께서 움직이신 결과와 아들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신 결과는 삼일 하나님의 충만이다. 아버지는 근원 이시고, 그 영은 수단이시며, 아들은 목적이시고, 삼일 하나님의 충만은 결과이다.

근원은 아버지이고, 수단은 그 영이며, 표적 혹은 목표는 아들이다. 왜냐하면 아들께서 중심 이시기 때문이다. ... 바울은 근원이신 아버지께, 통로이신 그 영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강하게 해주심으로 믿는 이들이 목표에 이를 수 있기를 기도하며 간구하였다. 그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었다.

삼일 하나님은 거대한 기계에 비유될 수 있는데, 바울은 이 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기도는 '그 기계의 바퀴를 돌렸다'. 우리는 ... 온 우주 안에 높은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 원칙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기 원하시지만, 그분은 단지 '기계'이실 뿐이며

운전하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다. 오늘날 나는 교회가 운전자가 되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대표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대표하였다. 이제 우주적인 '기계'이신 삼일하나님의 운전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교회가 운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체적으로 수행한다는 뜻이 아니다. 교회가 운전하지만 '기계'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수행하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이 우주적인 '기계'의 세 가지 '부품'이시고, 몸은 운전자이다.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그 영은 수단이시며, 아들은 표적이시자 목표이시다. 에베소서 3 장에 따르면, 운전자는 '기계'에게 운전자를 강하게 해 달라고 간구한다. ... 통로이신 그 영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어,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하심으로써, 목표이자 표적이신 아들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부분에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6 장, 83-85 쪽)

'속사람에 이르도록'(엡 3:16) 이라는 표현에서 '이르도록'이라는 말은 매우 의미가 깊다. 우리가 속사람에 이르도록 능력으로 강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속사람 안에 있지 않고 대체로 겉사람 안에서 산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떤 형제가 아내에게 피곤하다고 말할 때, 그는 겉사람 안에서, 생각 안에서, 몸의 피곤함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이다. ... 여러분은 속사람을 가지고 있다. 왜 거기에 머물지 않는가? 왜 여러분의 피곤함 가운데 머무는가? 여러분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피곤한 데서 여러분의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3 년, 2 권,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하심, 17 장, 40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소책자 시리즈, 2 권, 교회를 건축하는 길

7/22 금요일

아침의 누림

엡 3:17-18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18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고후 6:4-10

4 다만 우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추천합니다. 곧 우리는 많은 인내를 하고 환난과 궁핍과 곤경에 처하고
5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동을 당하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였으며,
6 또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거룩한 영과 거짓 없는 사랑과
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으며, 또한 오른쪽과 왼쪽에 의의 무기를 가졌고,
8 영광과 모욕, 악평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혹시키는 사람들 같으나 진실하고,
9 알려지지 않은 것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것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지 않고,
10 슬퍼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빌 4:11-13

11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12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해 드린다(엡 3:16-19). 에베소서 3 장에서 사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 하나님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 곧 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즉 그들의 전 존재를 점유하시게 하며,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14-19 절).

‘거처를 정하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카토이케오(katoikeo)’라는 단한 단어이다. 이 헬라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한 처소에 정착하다’ 혹은 ‘거처를 만들다’이며, 이 단어의 접두사 ‘카타(kata-)’는 ‘아래’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39 장, 61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아버지 하나님은 영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심으로 우리를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하고 계신다. 이것은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 뿐 아니라 (골 1:27), ... 또한 우리의 마음속 깊이 그분의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주하고 계신다. 우리 모두는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고, 지금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삼일(三一)로 거하실 수 있는 길을 그분께 내어 드리는 것이다. 삼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 안으로 이미 뿌리를 내렸다. 우리가 그분 안으로 뿌리를 내리는 동안, 아버지는 영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일하신다. 이것은 아들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생각(히 4:12)과 의지(행

11:23)와 감정(요 16:6, 22)과 양심(히 10:22)으로 구성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기를 위한 것이다. ...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한 이후로, 그리스도는 점차 우리의 생각을 점유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점령하시며, 우리의 양심 전체를 소유하기 시작하셨다.

우리의 마음은 방이 네 개인 집과 같다. 이 방은 바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모든 방과 각 방의 구석구석까지 점유하기를 갈망하신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동안, 우리는 강하게 되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된다(엡 3:18).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우주의 차원이다. ... 우주의 차원은 측량할 수 없으신 그리스도를 묘사한다. 그분의 차원은 곧 우주의 차원이다. 그분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이시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할 때에만 그분의 우주적인 차원을 깨달을 수 있다.(하나님의 신약 경륜, 39 장, 615-617 쪽)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먼저 그분의 존재에 대한 너비를 체험하고, 그 후에 길이를 체험한다. 이것은 수평적인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전진할 때, 그분의 풍성의 높이와 깊이도 체험한다. 이것은 수직적인 것이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너비와 길이로서 확장되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런 다음 그분께서 높이로서 솟아오르시는 것을 체험하며,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깊이로서 내려가시는 것을 체험한다. 이것이 보여 주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결국 입방체처럼 삼차원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너비만 있고 길이가 없다면, 우리의 체험은 하나의 선일 것이다. 즉 그것은 극도로 길고 좁은 체험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선처럼

일차원적이어서는 안 되고, 면처럼 이차원적이어야 하며, 그런 다음에 입방체처럼 삼차원적이어야 한다. ... 우리가 그분을 선으로만 체험한다면, 이 ‘선’은 결국 극단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서 이차원에서 삼차원으로, ‘면’에서 ‘입방체’로 전진해야 한다. 입방체는 견고하다. 성막과 성전 모두에서 지성소는 입방체였다. 이 입방체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성막의 경우에는 각각 십 규빗이었고, 성전의 경우에는 각각 이십 규빗이었다.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만 이천 스타디온인 영원한 입방체일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생활도 반드시 ‘입방체’이어야 한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33 장, 314-315, 31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33 장; 하나님의 신약 경륜, 39 장

7/23 토요일

아침의 누림

엡 3:19-21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 13:3-8, 19-23

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4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5 또 어떤 씨들은 흙이 얇게 덮인 바위 위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여 곧 싹이 나왔지만,
6 해가 돌아 내리쬐니, 뿌리가 없어 말라
버렸으며,
7 또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나무가 자라서 숨 막히게 하였습니다.
8 그러나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또 어떤 것은 삼십
배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19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입니다.
20 또 흙이 얇게 덮인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21 그의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사람입니다.
22 또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말씀이
숨 막히게 되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3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인데, 반드시 열매를 맺어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육십 배, 또 어떤
사람은 삼십 배로 거둡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내적 존재의 모든 부분에
확장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기회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확장되시는, 곧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각
부분에까지 확장되시는 문이 열린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확장되실수록, 그분은 우리 안에
더욱더 정착하시고 거처를 정하신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을 점유
하시고 이 모든 부분들을 소유하시며 그분
자신으로 적시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로

우리는 계시를 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워진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사도들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말하는 사람들인 신언자들이 될
것이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32 장, 310 쪽)

마태복음 16 장 18 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이
실현되려면,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거처를 정하시므로
그들의 내적 존재 전체를 소유하시고 점유하시고
적시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그러한 상태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으며, 또한 여전히 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들어가고 있으며, 그분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 우리가 더
들어갈수록 그분은 더 깊이 거처를
정하신다.(하나님의 신약 경륜, 39 장, 61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
이다(고전 3:9). 하나님의 경작지인 우리는
성장하기 위하여 뿌리를 내려야 하고, 하나님의
건축물인 우리는 건축되기 위하여 터를 잡아야
한다.(엡 3:17 각주 4)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으로 일해 넣어지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표현되신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영광이 하나님께 있게 된다. 즉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비교 엡
3:21).(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35 장, 334 쪽)

에베소서 3 장 16 절부터 21 절까지는 ...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도록 도와주고, 바울의 영과 태도와 기도와
믿음을 보여 준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바울의 영과 태도와 기도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교회를 보고, 교회를
건축하는 재료를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영과 태도를 갖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종류의
기도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바울의 영과 태도, 곧 그가 본 것과 그를 채웠던
것과 그가 말한 것과 그의 마음속에서 관심을
기울인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시고
사람과 연합되심으로써 그리스도로 교회를
건축하시어 그리스도로 총만하게 하시는 이상과
관계있었다. 이것이 바울의 전 존재 안에 총만했기
때문에, 그가 본 것과 말한 것과 그의 마음속에서
관심을 기울인 것은 이것과 관계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말씀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울의 기도와
믿음이 아니라 그의 영과 태도이다.

만일 우리가 이 이상을 본다면, 이 이상에
사로잡혀 아버지께 무릎을 꿇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장로와 모든 집사와 모든 동역자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마땅히 이상과
계시를 보아야 하고, 심지어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바울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영과
태도와 상태를 가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바울은
이러한 영과 태도와 상태를 가졌기 때문에 자연히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은 영과 태도를 가져야 하고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이러한 기도를 중심 삼아야 하며,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위해 믿음을 가져야 한다.(교회를 돌보는 길,
9 장, 182-18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사역 재개 메시지
기록(상), 20, 24 장;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32,
34-35 장*

7/24 주일

아침의 누림

엡 4:15-24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서 증언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18 그들은 이해력이 어두워져서, 그들 속에 무지가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19 그들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맡겼습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을 탐욕스럽게 행합니다.

20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시다.

21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22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 없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 버린 것이며,

23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24 새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찬송

538 -내 안에 주 계시하길

1 내 안에 주 계시하길 하나님 기뻐하니
밖의 종교 받지 말고 맘에 주 거하게 해

(후렴)

하나님의 원하심은 밖의 성취 아니요
내 안에 주 들어오셔 내 모든 것 뭉일세.

2 내 안에 주 사시기를 하나님 기뻐하니
일과 실행 주의 말고 다만 주를 누리세

3 내 안에 형상 이루길 하나님 기뻐하니
밖의 형식 좇지 말고 주만 증가하게 해

4 내 안에 거처 정하길 하나님 기뻐하니
밖의 봉사 열심 떠나 주 날 점유하게 해

5 주만 소망 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니
밖의 영광 구치 않네 주가 곧 영광일세

6 내 안에 주 만유 되길 하나님 기뻐하니
밖의 것을 구치 않고 주를 비결 삼으리

2022. 7. 18 ~ 2022. 7. 22

단체로 읽을 말씀: “생명 나무”, 3-4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24, 26, 28-30 장

생명나무, 13 장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33

장신약의 결론, 293, 295 장